

언론보도와 비평의 구조: 신문보도의 비평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¹⁾

장하용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들어가는 글

사회적 삶을 유지하는 데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²⁾ 이러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처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의 현주소는 아직도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확성의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언론사에 맡기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를 통해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을 시정하자는 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
- 1) 이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2) 1998년의 언론연구원 수용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보도를 언론 보도의 가장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문과 방송》, 1998, 11월호).

수 있다. 하나는 언론학자들이 매체나 학술지를 통해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수용자 단체가 모니터 활동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일종의 미디어 비평매체들이 정기적으로 언론 보도의 비평을 기사로 게재하는 경우이다(유선영, 양승찬, 장하용, 1998).

이 연구는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가 오랜 기간 보고서나 기사를 통해 한국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목소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가 제기해온 개별적인 비평을 정리해서, 한국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언론 보도의 문제를 네트워크 구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곧 언론 보도의 문제를 고립적이고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문제점들간의 관계와 질서를 분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한국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정확하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

이 연구는 언론 매체 중에서 신문의 보도에 대한 비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평은 방송 보도와 프로그램에 집중되어온 반면,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신문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들의 비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을 어떻게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실험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언론보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일 것이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언론비평이 메시지 내용의 차원뿐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언론 전반의 제도, 소유구조 문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송보경, 조용환, 오성숙, 손석춘, 이효성, 1997), 이 연구에서는 보도에 대한 비평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신문기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가는 별개로, 기사는 독자들에게 제시되는 순간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도 보도 자체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장하용, 1997).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냄비 저널리즘’ ‘하이에나 저널리즘’ ‘양비론’ ‘경마식 보도’와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이 학술적인 용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는 차지하고, 이러한 용어들은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신문독자들에게도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시민사회가 신문보도의 문제점을 다양한 수사적 표현을 가지고 제기해 왔지만, 이들은 이슈를 중심으로 한 단일 보도 비평의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신문 보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정도, 즉 빈도수만을 가지고 보도 문제의 경중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신문보도의 비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은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위계질서(hierarchy)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Greendale & Fredin, 1977). 즉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신문 보도의 문제점들은 다양할 뿐 아니라, 제시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밀접히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비평기사나 보고서에서, “하이에나 언론의 극치를 보여준 보도”라는 제목과 함께,

본문 속에서는 ‘본질 흐리기’의 문제나 ‘상업주의’ 보도 경향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이들은 동등한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이에나 언론’을 핵심적인 문제점(prominent problem)으로 지적하면서, 동시에 ‘본질 흐리기’와 ‘상업주의’ 보도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associated problem)으로 제기된 것이다. 즉 하나의 비평 기사 속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핵심주제와 관련주제라는 계층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주제 A, B가 신문 보도의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빈도가 같더라도, 중요성의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예컨대 주제 A는 핵심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면에 주제 B는 대부분이 관련주제로 언급되었다면, 같은 빈도에 불구하고 주제 A가 더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계층화와 함께, 우리는 비평주제의 군집화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한국 신문보도의 문제를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structure)로 보았을 때, 어떤 문제점들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문제점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빈도수는 많으나, 다른 문제점들과는 관련 없이 독자적인 것(isolated problem)으로 언급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핵심주제, 또는 관련주제인가는 관계없이, 어떤 문제점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함께 언급되는 정도가 높으며, 또 어떤 것들은 다른 문제점들과 함께 언급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보도 문제점들의 전체구조는 함께 제시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눌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의 신문보도 비평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서열화에 따라 핵심주제, 관련주제, 그리고 독립주제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이 연결되는 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신문 보도에 대한 비평의 지형도를 그려

내고자 한다.

III. 보도 비평의 구조적 탐색: 네트워크 분석

신문 보도의 문제점을 단순 병렬 차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였을 때,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틀이 유용할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자주 사용되어온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정보 처리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구성자는 사람이며, 연결요소는 사람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그리고 연결구조는 각 연결자들의 역할 차이와 네트워크 속성을 통해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최근 들어 다른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텍스트 담론 분석을 위한 상징 네트워크 분석이나(Danowski, 1993; Jang & Barnett, 1994), 국가간, 조직간 정보 흐름의 네트워크 등이 그것이다(장하용, 1997; 최영, 1998; Doerfel & Barnett, 199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과는 달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이 구성자가 되고, 연결요소는 보도의 문제점들이 비평기사와 보고서에서 함께 언급되는(co-occur) 빈도가 된다.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한다. 망(network)을 이루는 구성자(node), 연결요소(link), 그리고 이들간의 연결구조(structure)이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은 네트워크 구조속에서 각 구성자들이 담당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³⁾ 동시

3)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자의 역할은 다음의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한다. 전체 네트워크가 몇 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자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른 그룹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연결자(liaison)라고 부른다. 또한 어떤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그룹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자는 다리(bridge)라고 불린다. 반면에 다른 구

에 네트워크 구성자들은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에 따른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계질서의 차이에 따라 전체 네트워크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Wigand, 1988). 즉 어떤 구성자는 다른 구성자들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전체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는 반면에, 어떤 구성자들은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전체 구조의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⁴⁾

또한 이 연구는 구성자 사이의 관계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문제점 A와 문제점 B의 관계는 비대칭적으로(asymmetric), 'A relation B(ArB)'와 'B relation A(BrA)'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평주제의 성격을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핵심주제와 관련주제, 그리고 독립주제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ArB는 문제점 A가 핵심주제이고, 문제점 B는 관련주제인 경우를 의미한다. 반대로 BrA는 문제점 B가 핵심주제이고, 문제점 A는 관련주제가 된다. 반면에 ArA는 독립주제로, 문제점 A는 다른 문제점들 없이 홀로 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자들과 연결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를 고립자(isolate)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연결이 전혀 없는 순수 고립자, 오직 한 구성원과 연결되어 있는 첨부 고립자, 그리고 두 개의 구성자만이 연결된 고립자쌍 등이 있다.

- 4) 네트워크 구조에서 구성자들의 상대적인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지표로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심도(centrality)와 결합도(integration)를 살펴보았다. 중심도는 한 구성자가 다른 구성자와 직접 연결되는 가장 적은 단계의 연결수를 의미한다. 중심도는 나머지 구성자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결수의 평균이며, 따라서 적은 수의 연결수를 가질수록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반면에 결합도는 한 구성자가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연결단계의 실제 수, 즉 2단계 이상의 연결수를 가능한 간접적 연결수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결합도는 한 구성자의 개인적인 응집력 정도를 나타내며, 결합도 수치가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pp. 215-239; Rogers, E. M. and D. L. Kincaid(1981), *Communication Networks: Toward New Paradigms for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p. 179).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하위그룹을 구성하며, 어떤 것들은 이들 그룹을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어떤 것들은 관련된 문제점으로만 언급되는 반면, 어떤 것들은 핵심적이면서 연관된 문제점으로 동시에 취급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신문 보도 비평의 중심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단단히 밀집된 하부 집단을 형성할 것이다. 결국 시민사회의 신문보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지면 또는 보고서의 형태로 언론에 대한 비평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수용자 단체와 매체의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비평매체로는 《미디어 오늘》과 《바른언론》을, 수용자 단체로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신문보도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선택했다.

2. 분석대상

《미디어 오늘》의 경우, 창간호부터 고정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면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비평”면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 신문보도에 관한 비평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반면에 《바른언론》은 미디어 오늘과 같이 고정적인 매체 비평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

5) 이하 ‘민언협’으로 약칭함.

<표 1> 분석자료

자료명	분석자료의 내용
미디어 오늘	1995년 5월 17일, 창간호부터 1998년 6월 10일 149호에서 격주로 82호 표집
바른언론	1995년 7월 22일, 창간호부터 1997년 9월 13일 100호까지 격주로 55호 표집
민언협 보고서	1994, 95, 96, 97, 98년 하반기 보고서까지 전수 분석

석자료로 선택된 각호의 전체기사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이라고 여겨지는 기사만을 선택했다. 민언협 보고서의 경우에도 방송보도에 관한 비평은 제외하고, 신문보도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부분만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표집은 《미디어 오늘》과 《바른언론》의 경우, 서로 겹치지 않는 형태의 격주로 표집하는 방식으로 전체 호수의 절반을 선택하였다. 반면에 민언협 보고서는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부분 전체를 분석하였다.⁶⁾ 분석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분석유목

1) 비평주제의 판단

비평의 주제는 미디어 비평매체와 수용자 단체가 기사 또는 보고서를 통해서 제기한 신문보도의 문제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의 비평 기사나 보고서에서 복수의 문제점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목과 부제목에서 비평의 주제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이 있

6) 예를 들어 《미디어 오늘》에서 8월 2주호가 선택되었다면 《바른언론》은 8월 3주호를 표집하고, 다시 《미디어 오늘》은 8월 4주호를 표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민언협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전수 분석을 하였다.

7) 이러한 분류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평주제들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이 비평기사나 보고서의 문맥 속에서 제기되는 방식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예단 추측 보도’는 비

<표 2>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의 주제

비평의 주제유목	구체적 내용
1. 편파보도	특정후보, 정당, 계층, 재벌 편들기, 형평성 부족
2. 예단, 추측보도	넘겨짚기, 짐치기식 보도
3. 미확인 보도	사실의 미확인에 의한 전달
4. 증거보도	발표저널리즘, 외신에의 맹종, 탐사보도의 부족
5. 경마식 보도	게임식 보도, 지역감정 조장, 지역관세 보도
6. 안보 상업주의	보수 이데올로기 강조, 보수주의, 극우주의
7. 선정주의 보도	가십, 인신공격, 흥미위주의 보도, 성상품화
8. 한탕주의식 보도	터트리기식 보도
9. 사후 약방문식 보도	뒷북치기,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 부족, 소극적 방입
10. 축소보도	개인 문제화, 사건의 축소
11. 확대보도	부풀리기, 제목 과대 포장
12. 은폐, 묵살, 침묵	중요한 사건의 비보도
13. 양비론	당사자 양쪽을 모두 비방, 고고한 언론
14. 냄비언론	추후보도 없음
15. 떼거리 저널리즘	여론선동, 여론몰이
16. 본질 비껴가기와 흐리기	핵심 비껴가기, 초점 흐리기(다루지 않음), 의사 이미지 전달
17. 본질, 왜곡, 호도	본질을 다르게 해석, 자의적 해석, 이미지 조작
18. 이중적 보도행태	일관성 없는 보도(단일신문), 방향상실, 입장 번복, 널뛰기 보도
19. 엇갈린 보도태도	같은 주제에 대한 상반된 기사(신문간), 용어 해석의 차이
20. 자사 이기주의	자사 이해관계에 따른 보도, 자사 중심주의, 재벌 비재벌 신문의 논조 차이
21. 자사 생색내기	자사 칭찬, 자사 행사 홍보, 변명
22. 언론윤리의 문제	취재원의 비윤리적 사용, 촌지 등
23. 언론의 의제설정기능 부재	언론의 선도기능 부재
24. 무책임한 보도	표피적 현상 나열, 발언의 평면적 전달, 대안 없는 당위 주장
25. 책임회피성 보도	면피성 보도, 오보에 대한 합리화
26. 객관성 부족	기사의 취재 선택 오류, 독단적 비판, 일면 주장 보도
27. 독창성 부족	기사의 신문간 중복, 진부, 식상, 동일한 소재
28. 전문성 부족	무식한 언론, 전문기자의 부족
29. 정확성 부족	집회 참가자수 계산의 차이, 제목의 부적합, 여론조사 보도의 신뢰성
30. 표절	타사 기사 베끼기
31. 언론의 권력 만들기	정치과정에서의 적극적 관여, 권력 밀그룹 그리기
32. 하이에나식 물어뜯기 보도	약자 물어뜯기, 기회주의적 속성, 마녀사냥, 권력 눈치보기
33. 기타	

을 경우, 또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문제점을 나열한 경우를 비평주제의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명확한 단어나 문장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코더들이 문제점으로 작성하였다.⁷⁾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한 비평 기사와 보고서의 숫자는 341개이지만, 하나의 기사나 보고서 안에 복수의 비평주제가 존재하므로, 비평주제의 수는 이보다 많아지게 된다.

2) 비평주제의 성격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연구는 추출된 각 비평주제들의 성격을 결정하였다. 즉 어떤 비평주제가 핵심적인 문제인가, 관련된 문제인가, 아니면 독자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우선 핵심주제는 하나의 비평기사나 보고서에서 여러 개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경우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제목이나 결론 부분에 명확하게 문제점으로 기술되었을 경우, 또는 본문 안에 등장하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나 자주 언급되는 경우를 핵심주제로 결정하였다.

핵심주제와는 반대로, 관련주제는 본문에서 언급되지만 제목이나 결론에 등장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핵심주제보다 적은 분량과 빈도수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주제는 비평기사나 보고서에서 하나의 문제점만이 일관되게 지적된 경우를 의미한다.

7) 이러한 분류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평주제들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이 비평기사나 보고서의 문맥 속에서 제기되는 방식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예단 추측 보도’는 비평의 문맥이 장래의 일을 넘겨짚거나 점치기식으로 보도하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반면에 ‘미확인 보도’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앞지르기가 아니라 정보원의 확인 과정 없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표 2>에서는 각 비평주제의 세부적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평주제들의 명확한 상호배타성 부족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 될 수밖에 없다.

4. 분석 자료의 구성과 분석 기법

문제점으로 지적된 33개의 비평주제들은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 33의 행과 33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표(matrix)로 구성되었다. 이 행렬표는 열과 행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i, j)와 셀(j, i)는 서로 다른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셀(2, 7)은 문제점 2가 핵심주제일 때 문제점 7이 관련주제로 등장한 빈도수를 말하는 것이며, 반대로 셀(7, 2)는 문제점 7이 핵심주제일 때 문제점 2가 관련주제로 등장한 빈도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셀(2, 7)과 셀(7, 2)의 빈도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 행렬표의 대각선(diagonal)은 각 문제점들이 독립주제로 등장한 빈도수를 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행렬표 자료를 가지고, 본 연구는 비평주제들간의 연결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군집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네트워크의 지형도(map)와 함께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집분석은 UCINET Ver 4.0의 존슨서열군집기법을(Borgotti & Freeman, 1992), 네트워크 분석은 NEGOPY를 이용하였고(Richards, 1989), 네트워크 지형도는 Krackplo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Krackhardt, Lundberg, & O'Rourke, 1993).

5. 신뢰도 검사

분석유목의 설정과 분류에 대한 신뢰도의 검사는 연구자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2인의 코더가 시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체 분석자료의 15%를 무선적으로 선택한 다음, 핵심주제와 관련주제의 일치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핵심주제 유목에 대한 코더간 상호 일치도는 0.83, 관련주제에 대한 일치도는 0.74를 보이고 있다.

V. 분석 결과

1. 신문보도 비평의 양

《미디어 오늘》은 99개, 《바른언론》은 112개, 그리고 민언협 보고서는 130개로, 이들 3개 매체에 게재된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기사는 모두 341개였다.⁸⁾ 《미디어 오늘》의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기사는 평균적으로 각 호당 1.2개로, 미디어 비평면에 평균적으로 4개 기사가 실리는 것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적은 양이다. 또한 《바른언론》은 각 호당 평균 2.0개로 《미디어 오늘》에 비해 많으나, 《바른언론》은 《미디어 오늘》과 달리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적은 기사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를 크게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로 나눌 경우, 매체비평이 신문보다는 방송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⁹⁾

2. 비평 주제의 성격

전체적으로 볼 때, 33종류의 비평주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핵심 또는 관련주제로 언급되고 있었다. 전체 출현빈도수인 583개 중에서¹⁰⁾ 각각

-
- 8) 언론 보도의 비평은 긍정적인 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비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분석한 341개의 비평기사와 보고서 중에서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최종적인 분석자료는 위 5건을 제외한 336건의 비판기사, 보고서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평주제”라는 용어는 사실상 “비판주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9) 민언협 보고서는 신문보도에 관한 비평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이나 《바른언론》과는 달리 특정 매체에 대한 비평의 집중성을 평가할 수 없다.
- 10) 분석된 비평기사의 수는 336개이나, 하나의 비평기사 안에 복수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전체 비평주제의 수는 583개이며, 평균적으로 비평기사 당 1.7개의 비평주제를 보이고 있음.

<표 3> 제시 방식의 차이에 따른 비평주제의 성격

비평주제	핵심주제(%)*	관련주제(%)	독립주제(%)	합계
1. 편파보도	31(54.4)	13(22.8)	13(22.8)	57
2. 예단, 추측보도	16(50.0)	8(25.0)	8(25.0)	32
3. 미확인 보도	5(29.4)	10(58.8)	2(11.8)	17
4. 중계보도	10(41.7)	10(41.7)	4(16.6)	24
5. 경마식 보도	2(50.0)	2(50.0)	0(0.0)	4
6. 안보 상업주의	7(58.3)	2(16.7)	3(25.0)	12
7. 선정주의 보도	11(29.7)	15(40.5)	11(29.7)	37
8. 한탕주의식 보도	1(50.0)	1(50.0)	0(0.0)	2
9. 사후 약방문식 보도	5(62.5)	1(12.5)	2(25.0)	8
10. 축소보도	3(15.0)	16(80.0)	1(5.0)	20
11. 확대보도	1(5.3)	15(78.9)	3(15.8)	19
12. 은폐, 묵살, 침묵	2(14.3)	10(71.4)	2(14.3)	14
13. 양비론	0(0.0)	6(85.7)	1(14.3)	7
14. 냄비언론	7(63.6)	2(18.2)	2(18.2)	11
15. 떼거리 저널리즘	6(50.0)	3(25.0)	3(25.0)	12
16. 본질 비껴가기와 호리기	27(50.0)	18(33.3)	9(16.7)	54
17. 본질 왜곡, 호도	25(52.1)	14(29.2)	9(18.7)	48
18. 이중적 보도행태	12(41.4)	11(37.9)	6(20.7)	29
19. 엇갈린 보도태도	17(73.9)	2(8.7)	4(17.4)	23
20. 자사 이기주의	2(12.5)	7(43.7)	7(43.7)	16
21. 자사 생색내기	0(0.0)	0(0.0)	1(100.0)	1
22. 언론 윤리의 문제	2(22.2)	5(55.6)	2(22.2)	9
23.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 부재	5(100.0)	0(0.0)	0(0.0)	5
24. 무책임한 보도	7(20.6)	21(61.8)	6(17.6)	34
25. 책임회피성 보도	2(28.6)	4(57.1)	1(14.3)	7
26. 객관성 부족	10(38.5)	14(53.8)	2(7.7)	26
27. 독창성 부족	1(10.0)	5(50.0)	4(40.0)	10
28. 전문성 부족	1(50.0)	0(0.0)	1(50.0)	2
29. 정확성 부족	6(26.1)	11(47.8)	6(26.1)	23
30. 표절	5(100.0)	0(0.0)	0(0.0)	5
31. 언론의 권력 만들기	1(50.0)	1(50.0)	0(0.0)	2
32. 하이에나식 물어뜯기 보도	3(30.0)	5(50.0)	2(20.0)	10
33. 기타	1(33.3)	1(33.3)	1(33.3)	3
합계	234(40.1)	233(40.0)	116(19.9)	583

* 괄호 안의 %는 각 비평주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나타냄.

40%정도가 핵심 또는 관련주제로 언급된 반면, 독립주제로 나타난 경우는 전체의 19%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 매체들이 신문보도를 비판하면서 복수의 문제점을 함께 제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출현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비평주제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핵심주제로 언급된 것은 ‘편파보도’ ‘예단 추측보도’ ‘안보 상업주의’ ‘사후 약방문 보도’ ‘냄비언론’ ‘떼거리 저널리즘’ ‘본질 비껴가기’ ‘본질 왜곡’ ‘엇갈린 보도 태도’ 등으로, 이들은 주로 보도의 내용적인 문제점에 관한 것들이다. 반면에 관련주제로 언급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은 ‘미확인 보도’ ‘선정주의’ ‘축소’ ‘확대’ ‘은폐, 묵살’ ‘무책임 보도’ ‘객관성 부족’ ‘정확성 부족’ 등으로, 대부분이 기사의 내용적 측면보다는 기사의 전달과 태도에 관한 문제점들로 보인다. 곧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 매체들은 신문보도를 비판하면서, 기사의 내용상 문제점들은 핵심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반면, 기사의 보도 방식과 태도의 문제점들은 이들의 배경적인 이슈로 논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립주제의 경우, ‘자사 이기주의’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30% 미만의 상대적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3>은 비평주제들을 세 가지 성격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3. 비평주제들의 관계에 대한 군집 분석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제기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비평주제들이 기사나 보고서 안에서 함께 언급될 때, 어떤 연결 관계를 가지는가? 우선 동시에 언급되는 정도에 따라 33개의 비평주제들이 일정수의 하위집단으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존슨의 서열군집분석(Johnson's Hierarchical Clustering)을 이용해서 이를 확인해 보았다. 군집 분석 방식은 그룹 평균(group average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군집 여부의 판단을 위한 기준은 1.0으로 하였는데, 이는 같은 군집 안에 있는

비평주제들이 평균적으로 1단위 이상 함께 언급되는 정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분석 결과 33개의 비평주제들은 6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사성이 가장 높은 것은 ‘편파보도’와 ‘본질 비껴가기’이며, 이들은 ‘무책임 보도’ ‘중계보도’ ‘엇갈린 보도’ 등과 함께 군집 1을 이루고 있다. 곧 위의 5개 문제점들은 신문보도 비평에서 함께 언급되는 정도가 높으며, 따라서 이들은 다른 문제점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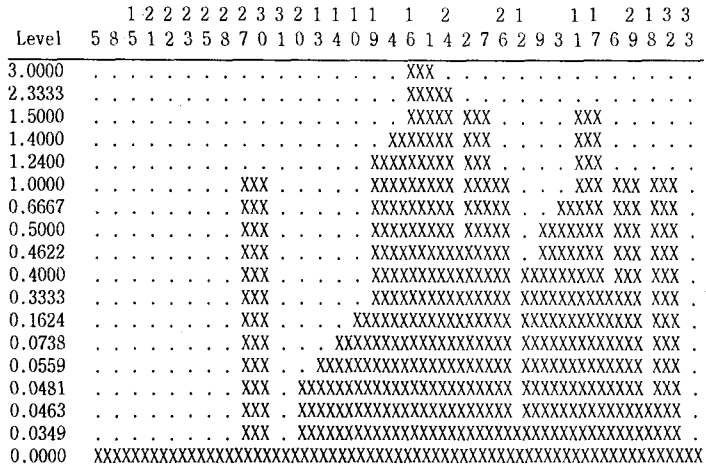
군집 2는 ‘예단, 추측’ ‘선정주의’ ‘객관성 부족’의 3가지 비평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집 3은 ‘확대보도’ ‘본질 왜곡, 호도’의 문제점들이, 그리고 군집 4는 ‘안보 상업주의’와 ‘정확성 부족’의 문제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5는 ‘이중적 보도’와 ‘하이에나 보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집 6은 ‘독창성 부족’과 ‘표절’의 문제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군집 6은 상대적으로 다른 군집들과 동떨어져 위치하면서 매우 낮은 수준의 결정 수준(0.0349 단위)에서도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군집 6의 비평주제인 ‘독창성 부족’과 ‘표절’의 문제는 다른 문제점들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면서, 동시에 이들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비록 6개의 군집이 추출되었지만, 군집분석의 그림을 살펴보면 군집 6을 제외하고 2개의 그룹으로 대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0463 단위 수준 이상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됨) 즉 군집 1과 2가 하나의 그룹으로, 그리고 군집 3, 4, 5가 또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집1과 군집 2 그룹은 ‘편파보도’ ‘본질 비껴

11) 군집분석에서 군집수의 결정은 어느 정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어느 수준에서 군집의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자료의 성격과 군집의 명확성에 대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 자료는 비평주제들간의 유사성(similarity) 정도이고, 유사성을 보도비평 안에서 함께 언급되는 정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동일 군집내의 비평주제들이 평균적으로 1번 이상 연결되는 정도를 군집 판단의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 비평주제들의 군집분석 결과



<표 4> 비평주제 군집의 내용

군집명	내용
군집1	편파보도(1)*, 본질 비껴가기(16), 무책임 보도(24), 증계보도(4), 엇갈린 보도태도(19)
군집2	예단 추측보도(2), 선정주의(7), 객관성 부족(26)
군집3	확대보도(11), 본질 왜곡 호도(17)
군집4	안보 상업주의(6), 정확성 부족(29)
군집5	이중적 보도행태(18), 하이에나식 물어뜯기(32)
군집6	독창성 부족(27), 표질(30)

* 괄호는 (그림 2)의 상단에 있는 비평주제 번호를 의미함.

가기 ‘선정주의’ ‘객관성 부족’ 등 대부분이 기사의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이며, 반면에 군집 3, 4, 5 그룹은 ‘이중적 보도’ ‘하이에나 보도’ ‘확대보도’ 등, 기사 작성이나 보도의 방식에 관한 문제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의 신문 보도 비평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들은 함께 언

급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6개의 군집으로 나뉘며, 동시에 이들은 기사의 내용에 관한 문제와 기사의 작성 및 보도 방식의 문제점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과 <표 4>는 군집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 비평주제들의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이 연구는 비평주제들이 함께 언급되는 정도에 따라 군집을 이룰 뿐 아니라, 비평의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주제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비평주제들의 속성과 연결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평주제를 구성자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형도로 제시하였다.¹²⁾ <표 5>는 비평주제들의 중심도와 결합도를, <그림 2>는 비평주제의 네트워크 지형도를 군집분석의 결과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¹³⁾

12) 군집분석은 비평주제들이 같이 언급되는 빈도수의 차이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비평주제들이 서로 관련이 높다는 정도를 말해줄 뿐 관련 구조 및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평주제들간의 연결 구조와 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지표와 지형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군집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 분석하였다.

13) 이 그림은 연결 정도를 2이상, 즉 비평주제가 2번 이상 함께 등장하는 경우의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완전한 네트워크 구조는 1번 함께 등장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그림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지며, 또한 연결의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도 1번 함께 등장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연결정도를 1로 한 경우와 2로 한 경우의 네트워크 구조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QAP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두 구조간의 유사성 정도는 $r=0.912(p=0.0001)$ 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AP 분석에 관한 것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Krackhardt, D., & L. Porter(1986), "The Snowball Effect: Turnover Embedded in Communication Network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pp. 50-55; Stohl, C (1993), "European Managers' Interpretations of Participation: A Semantic Network Analysi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0, pp. 97-1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 정도를 2이상인 경우의 구조를 최종적인 네트워크로 제시하였다.

<표 5> 비평주제의 중심도와 결합도 비교

비평주제	중심도	결합도
본질 왜곡 호도	1.33	0.384
편파보도	1.37	0.392
본질 비껴가기, 흐리기	1.47	0.434
이중적 보도	1.50	0.437
축소보도	1.50	0.390
예단 추측 보도	1.53	0.444
무책임 보도	1.57	0.449
선정주의	1.60	0.424
정확성 부족	1.63	0.526
객관성 부족	1.63	0.591
엇갈린 보도	1.63	0.606
중계보도	1.67	0.527
미확인 보도	1.70	0.556
은폐, 묵살, 침묵	1.77	0.457
자사 이기주의	1.83	0.607
확대보도	1.83	0.583
안보상업주의	1.83	0.667
넘비언론	1.90	0.476
양비론	1.93	0.900
사후약방문식 보도	1.97	0.600
하이어나 보도	2.00	0.600
독창성 부족	2.07	0.333
표절	2.20	0.333
평균 (표준편차)	1.72 (0.23)	0.509(0.129)

* Kendall's $\tau = 0.378$ ($p < 0.013$), 양방 검증.

우선 비평주제들의 평균 중심도는 1.72(표준편차 0.23)로, 평균적으로 비평주제들 각자는 다른 비평주제와 연결되기 위해서 1.72개의 연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결합도는 0.509(표준편차 0.129)이며, 이는 평균적으로 한 비평주제가 다른 비평주제들과 72%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심도가 높은 것은 ‘본질, 왜곡, 호도’와 ‘편파보도’, ‘본질 비껴가기, 흐리기’의 문제이다. 이들은 다른 문제점들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단계를 거쳐서 연결되기 때문에 신문보도 비평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결국 가장 다양한 문제점들과 관계된다는 비평

의 시각을 말해준다. 반면에 결합도의 경우에는 중심도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결합도가 높은 문제점일수록 중심도가 낮게 나타난다. 가장 결합도가 높은 것은 '양비론'과 '안보 상업주의', '자사 이기주의' 등으로,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다른 하위군집의 문제점들과 연결된다. 곧 이들은 네트워크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위치하면서, 자신이 속한 하위 집단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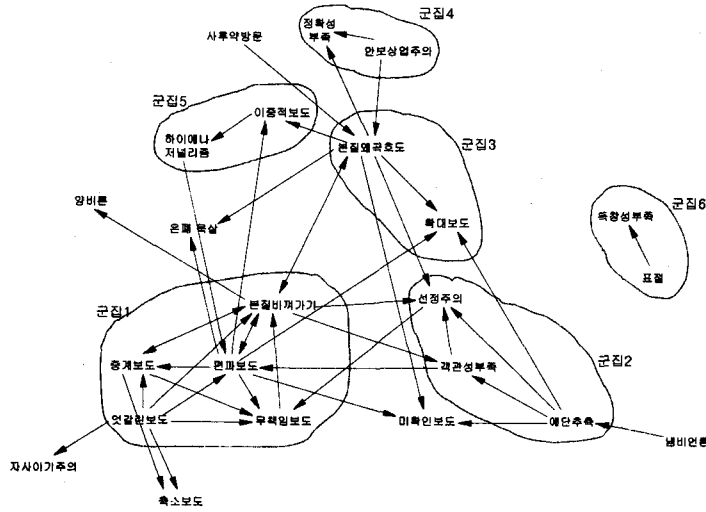
이런 결과는 <그림 2>의 네트워크 지형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는 33개의 비평주제 중 순수 고립자 10개를 제외하고, 23개의 비평주제간의 연결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각 비평주제들간의 화살표 방향은 핵심주제와 관련주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6→29는 주제 6이 핵심주제이고, 29는 함께 언급되는 관련주제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6←29는 어떤 비평문에서는 주제 6이 핵심주제, 29는 관련된 주제로 등장하고, 또 다른 비평문에서는 주제 29가 핵심주제로 주제 6은 관련된 주제로 동시에 언급된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네트워크는 6개의 하위 그룹(군집 1-6)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연결 관계를 보이는 것은 군집 1이며, 반면에 군집 6은 다른 것들과의 연결 없이 2개의 비평주제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자쌍(isolate dyad)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군집의 구조를 화살표의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가장 조밀한 연결관계를 보이면서 동시에 다른 군집의 구성자와도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편파보도'와 '본질 비껴가기'가 가장 중심적이며, 이들은 다른 3가지 주제(무책임 보도, 증계보도, 엇갈린 보도)의 핵심주제가 된다. 곧 군집 1은 '무책임 보도'와 '증계보도', '엇갈린 보도' 등을 배경으로 해서 '편파'와 '본질 비껴가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군집 2에서는 '예단 추측'이 '객관성 부족'과 '선정주의'의 핵심주제로서 언급되고 있다. 즉 예단 추측의 문제는 신문이 선정주의적 시각

<그림 2> 비평주제의 네트워크



을 가지고 일면적 기사 작성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인식을 말해주는 것이다.

군집 3은 ‘본질 왜곡 호도’와 ‘확대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집 4는 ‘정확성 부족’이 ‘안보 상업주의’와 밀접한 요인으로 함께 하고 있고, 군집 5는 ‘이중적 보도’의 구체적 모습으로 ‘하이에나 보도’가 언급되고 있다. 군집 6은 고립자쌍(isolate dyad)으로 ‘독창성 부족’은 ‘표절’ 문제의 배경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군집들의 연결관계를 각 비평주제들의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3개의 구성자들 중에서 2개의 주제가 연결자(liaison)로 나타나고 있다. ‘미확인 보도’는 군집 1(편파보도), 군집 2(예단 추측), 군집 3(본질 왜곡 호도)과 연결되어 있으며, ‘은폐 목적’은 군집 1(편파보도)과 군집 3(본질 왜곡 호도)을 연결하고 있다. 즉 ‘미확인 보도’와 ‘은폐목적’은 편파, 예단 추측, 본질 왜곡이라는 핵심적 문

제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밖에 4개의 고립자(isolate)들이 있는데, ‘사후 약방문 보도’는 ‘본질 왜곡 호도’의 핵심주제로, ‘양비론’은 ‘본질 비껴가기’의 관련주제로, ‘냄비언론’은 ‘예단 추측 보도’의 핵심주제로, 그리고 ‘자사 이기주의’는 ‘엇갈린 보도’의 관련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첨부 고립자(attached isolate)로서 한 개의 비평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양비론’은 다른 문제들과는 언급되지 않고 오직 ‘본질 비껴가기’의 배경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체 비평주제 중에서 가장 다양한 비평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편파보도’와 ‘본질 비껴가기’, 그리고 ‘본질 왜곡 호도’이다. ‘편파 보도’의 경우, 8개 비평주제(미확인 보도, 중계보도, 축소보도, 확대보도, 은폐 목살, 본질왜곡, 본질 비껴가기, 무책임 보도)의 핵심주제이며, 4개 비평주제(본질 비껴가기, 엇갈린 보도, 객관성 부족, 하이에나 보도)의 관련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본질 비껴가기’는 7개의 비평주제(편파보도, 중계보도, 선정주의, 양비론, 본질왜곡, 무책임보도, 객관성 부족)의 핵심주제이며, 6개의 비평주제(편파보도, 중계보도, 선정주의, 본질왜곡, 엇갈린 보도 무책임보도)의 관련주제로 언급되고 있다.

위의 두 주제 다음으로 활발한 연결관계를 보이는 것은 ‘본질 왜곡 호도’로, 7개 비평주제(미확인 보도, 선정주의, 확대보도, 은폐 목살 침묵, 본질 비껴가기, 이중적 보도, 정확성 부족)와는 핵심적 문제로, 그리고 3개 주제(안보상업주의, 사후약방문, 본질 비껴가기)와는 관련된 문제로 언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눈에 띄는 것은 ‘선정주의’로, 모두 5개의 비평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선정주의’가 이들의 관련주제로 언급되고 있다. 즉 선정성 문제는 신문보도가 예단 추측과 본질 왜곡, 객관성 부족, 본질 비껴가기라는 문제점을 일으키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문보도에 대한 비평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편파보도’와 ‘본질 왜곡 호도’, ‘본질 비껴가기’의 문제로, 이들은 다

양한 문제점들의 핵심 또는 관련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주로 '미확인 보도' '중계보도' '은폐 목살 침묵' '이중적 보도' 등의 핵심적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들은 기사 작성 및 보도 방식의 문제로 인해 편파와 본질, 왜곡 호도, 본질 비껴가기 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VI.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그 동안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언론 보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비평의 구조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가 제기하는 신문 보도의 문제점들을 제기되는 방식에 따라 핵심주제, 관련주제, 독립주제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descriptive) 수준의 내용분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해보려고 하였다.

우선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 매체들은 한국 신문보도의 문제점으로 매우 다양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또한 각각의 비평에서 하나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었다. 언급된 33개중에서 대부분이 핵심적인 문제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으며, 독립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우는 전체의 19%에 지나지 않았다. 즉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들은 대부분의 신문 보도가 복수의 문제점들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신문보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편파'와 '본질 비껴가기' '본질 왜곡' '안보 상업주의' 등 기사의 내용 차원인 반면, '미확인 보도' '무책임 보도' '은폐 침묵' 등 기사의 작성과 보도 방식의 문제들은 이들의 배경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곧 시민사회의 비평은

기사 내용의 문제점들을 핵심적인 사안으로 제기하면서, 이들이 발생하는 원인 또는 배경으로 기사의 작성 및 보도 방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사회의 신문보도 비평은 23개의 주요 문제점들이 6개의 하위 그룹을 형성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다양한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편파보도’와 ‘본질 비껴가기’ ‘본질 왜곡’으로, 대다수의 다른 문제점들과 핵심 또는 관련주제로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신문보도 비평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되고 있었다. 곧 수용자 단체와 미디어 비평매체들은 위의 세 주제가 한국의 신문 보도가 범하는 가장 빈번한 문제점일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문제점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신문보도의 문제점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제들이 군집의 구성원인 반면, 2개 비평주제는(미확인 보도, 은폐 묵살 침묵) 연결자로서 각 그룹들을 연결시키고 있었으며, 4개의 주제는(양비론, 사후 약방문, 냄비언론, 자사 이기주의) 첨부 고립자로 각기 하나의 다른 주제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시민사회의 비평이 문제점들을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이 함께 하는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평 구조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예컨대 분석 결과와 같이, ‘예단 추측’ ‘선정주의’ ‘객관성 부족’이 같은 차원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신문보도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분석 결과는 신문 보도에 대한 수용자 단체와 비평매체들의 시각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신문보도가 실제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다. 위의 예를 든다면, 한국 신문기사가 사건을 앞질러

추측하고 단정지으며 선정주의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수용자 단체와 비평매체들의 비평을 다른 차원의 언론 비평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작업일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틀을 수용자와 학계의 비평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언론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보도의 문제점들을 밝히는 데 적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민사회 비평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수용자 단체와 비평매체, 언론학과 수용자들의 시각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를 언론인들의 시각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시민사회와 언론계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이루어진 언론비평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언론학의 여러 주제에 적용될 수 있다. 한가지 예로 의제설정 연구에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의제설정 연구들은 언론 메시지에 등장하는 이슈들의 빈도와 이슈에 대한 수용자 인식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에 등장하는 많은 뉴스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실업, 구조조정, 청문회, 대북관계 등의 이슈는 반복해서 등장하며, 중요한 것은 이들간의 관계(relations)가 언론 메시지와 수용자들의 인식 모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다(Greendale & Fredin, 1977). 따라서 예전에 실업이라는 이슈는 도시화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구조조정의 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의제설정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빈도수와 서열측정에 의한 단순 비교가 아니라, 언론 메시지에서 제시된 이슈들의 관계 구조와 수용자 인식 구조 사이의 상동성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 송보경, 조용환, 오성숙, 손석춘, 이효성(1997), 「저널리즘 비평의 확대 및 효율화 방안」, 《저널리즘 비평》 제21호, 24-35쪽.
- 유선영, 양승찬, 장하용(1998), 『신문보도와 비평』, 한국언론연구원.
- 이종경(1998), 「수용자 의식조사: 제9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요약」, 《신문과 방송》 제11월호.
- 장하용(1997), 「한국언론의 여론형성 네트워크 분석: 9대 중앙지의 사설기사 공유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1호, 110-141쪽.
- 최영(1998), 「OECD 가입에 따른 한국의 지역(APEC) 및 세계블록(OECD)에서의 위치와 역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3-1호, 277-311쪽.
- Borgotti, S. & L. Freeman(1992), *UCINET IV: A Microcomputer Package for Network Analysis*, Columbia: SC.
- Danowski, J. A.(1993), "Network Analysis of Message Content," in Richards, W. D. & G. A. Barnett(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 XII, Norwood: Ablex, pp. 197-222.
- Doerfel, M. L. & G. A. Barnett(1999),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5, pp. 589-602.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pp. 215-239;
- Greendale, S. C & E. S. Fredin(1977), "Exploring the Structure of National Issues: Newspaper Content and Reader Perceptions," in Hirsch, P. M., P. V. Miller, & F. G. Klein (eds.), *Strategies for Communication Research* Vol.6, Beverly Hills: Sage, pp. 167-183.
- Jang, H. Y & G. A. Barnett(1994), "Cultural Differences in a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 Semantic Network Analysis," *Bulletin De Methodologie Sociologique*, 44, pp. 31-59.
- Krackhardt, D., M. Lundberg, & L. O'Rourke(1993), "Krackplot: A Pic-

- ture's Worth a Thousand Words," *Connections*, 16, pp. 37-47.
- Krackhardt, D., & L. Porter(1986), "The Snowball Effect: Turnover Embedded in Communication Network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pp. 50-55.
- Richards, W.(1989), *The NEGOPY Network Analysis Program*, Burnaby, Canada: Dept. of Communic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Rogers, E. M. and D. L. Kincaid(1981), *Communication Networks: Toward New Paradigms for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p. 179.
- Stohl, C.(1993), "European Managers' Interpretations of Participation: A Semantic Network Analysi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0, pp. 97-117.
- Wigand, R. T.(1988), "Communication Network Analysis: History and Overview," in Goldhaber, G. & G. A. Barnett(eds.), *Handbook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Norwood: Ablex, pp. 319-360.

■ Abstract

Exploring the Structure of Media Criticism: A Network Analysis of the Problems in Korean Newspaper Reporting.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problems of Korean newspaper reporting raised by the civil society.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mode of presentation, the problems of newspaper reporting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rominent, associated, and isolate problem. The relations among these problems were defined as the degree of co-occurrence in the monitoring articles. A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ructure of the problems in Korean newspaper reporting. A 33×33 similarity matrix of the problems was created by analyzing the data from one monitoring report and two weekly media critics newspapers.

The results showed that of the 33 problems, most of them were mentioned as prominent or associated problem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news contents were mostly treated as prominent ones, while the problems about the news writing and reporting styles were frequently treated as associated ones. The network structure of newspaper criticism based on the co-occurrence of 33 problems were

divided into six clusters. Among them, the most central was the group including the problems of “unfairness,” “biased interpretation,” and “vagueness”. In addition, the problems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roles in the network. Of the 33 problems, two were liaisons and four were attached isolates, indicat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problems in newspaper reporting.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light of two viewpoints; the absence of objective criteria in media criticism, and the need for the comparisons of the current study’s results with the opinions of newspaper readers and journalists.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